

## 한국의 대동남아 수출경쟁력 결정요인 분석

###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determinant of Export Competitiveness Power of Korea in ASEAN Market

박 승 문\*

Park, Seung Mun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South Korea's export competitiveness in the ASEAN market on the basis of data from 1990-2012 were analyzed. South Korea's export competitiveness in the ASEAN market, MSI, TSI, RCA, GL, and export competitiveness in terms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aspects of the study.

ASEAN market share in Korea's high iron items, metals and electrical equipment devices, communications equipment, and the ASEAN countries trade specialization index of transport equipment, iron, metals,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in order of competitiveness in the world market has Korea's trade surplus is affecting major export items.

It also is a huge economic zone of Asean to surpass MERCOSUR, EU, the FTA in terms of average annual economic growth rate, through the promotion of the formation of the Economic Community Asian Free Trade Area (AFTA), the EU type, the ASEAN market, the world it is expected to rise to the huge market in the economy.

Overall, exports of ASEAN countries recently, the rise in the degree of income items, but there are a lot of items in a downward trend in terms of intra-industry trade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in particular in favor of the growth of China's export competitiveness is declining.

However, the average annual economic growth of ASEAN market is emerging as a huge market, so in terms of the continued interest and investment in Korea by Korea company's profit-based economy is positioned to create a market that will need to be.

핵심주제어 : 수출경쟁력, 시장점유율, 무역특화지수, 현시우위비교, 산업 내 무역

---

---

\*동아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과정

## I. 서론

세계경제의 국제통상환경을 보면 1995년 WTO 출범이후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지역주의가 가속화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자유무역협정 추진의 흐름 속에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다소 늦게 FTA 추진을 시작 하였다. 특히 한국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가로 경제성장의 돌파구를 수출을 통해 발판을 마련 하였고 수출이 한국경제의 근간이라는 사실은 여러 통계에서 확인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의 무역의존도는 1964년 17.6%에서 2012년 110%까지 확대 되었다.

한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수출은 미국시장, 수입은 일본시장에 편중되어 있고, 1962년 경제 개발계획이 실시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대미수출이 전체50%를 상회하기도 하였으나, 1990년 이후 점차 대미 수출액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다가, 2000년에 다시 20%를 회복했지만 2012년 10.4%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한편 대ASEAN시장은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한국의 수출시장으로써의 자리매김을 하였고, 한국의 대ASEAN 수출은 1980년 이후 급증하였다.

최근 글로벌 경제의 축이 선진국에서 BRICs로, 다시 VIP<sup>1)</sup>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sup>2)</sup> VIP시장은 강대국은 아니지만 풍부하고 다양한 인적자원 및 잠재 성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BRICs경제성장률이 2010년 7.1%에서 2011년 5.3%로 둔화되고 있는데 비해 동남아 VIP시장은 GDP는 약 1조2천억 달러, 연평균 성장률은 5.3%로 POST BRICs 국가로 대두 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와 같이 대ASEAN 시장의 중요성은 탄탄한 내수시장보유와 풍부한 노동력과 천연자원으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고 전체인구 중 젊은 생산연령층이 많아 고도성장이 가능한 국가이다.

한국과 ASEAN은 1997년 12월부터 ASEAN+3(한·중·일) 정상회의와 한-ASEAN정상회의를 연례 개최하는 등 국가 정상급을 비롯하여 정부각처에서 활발한 정책협외와 실질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어 한-ASEAN간 경제협력은 확대 심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에서 대ASEAN 국가 중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을 연구 국가로 선정한 것은 2012년 기준 태국은 대ASEAN 국가 중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경제규모가 크며, 수출이 GDP의 70%를 차지하는 국가라는 점이 작용했으며,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2억4천만 명의 인구와 대 ASEAN 국가 중 가장 큰 시장이 반영 되었다. 또한 1만 7천여 개의 도서로 이루어진 광범위한 면적의 세계3위의 자원부국이라는 점에서 다루게 되었다.

베트남은 인구가 9천만 명으로 1986년 시장개방이 이루어지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개발도상국으로 한국기업의 진출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국으로 포함 시켰으며, 싱가폴은 인구는 약530만 명이지만 1인당 GDP 2012년 기준 5만 323 달러로 세계 1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과 투자의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정책을 실행하여 3천개이상 다국적기업이 진출해 있고, 한국과 2006년 FTA 발효 된 이후 매년 25%씩 교역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루게 되었다.

1) VIP:베트남(V), 인도네시아(I),필리핀(P)의 앞 글자를 딴 신흥 경제성장 주도국을 말함.

2) 오영호, 새로 뜨는 동남아 VIP시장의 중요성과 진출방안, 한국무역협회.2012

말레이시아는 소수의 특산물 생산과 그 수출에 의존해온 전형적인 단일재배 경제국이며, 이로 인하여 대ASEAN 에서는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높은 소득수준에 이른다. 그러나 독립 후, 정부는 수출지향성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고 경제의 다각화를 도모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루게 되었다.

필리핀은 천연자원과 해양자원이 풍부한 국가로써 대ASEAN국가와 함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다루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대ASEAN 시장에서의 경쟁력확보를 목적으로 한국과 대ASEAN 수출경쟁력을 각 지수들을 토대로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ASEAN 주요산업인 철강, 화학, 섬유, 전자기기 상품을 대상으로 시장점유율, 무역특화지수, RCA지수, 시장경쟁력지수를 계측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 II. 수출경쟁력의 개념 및 측정수단

### 1. 수출경쟁력의 개념 및 측정수단

#### 1.1 수출경쟁력의 정의와 범위

경쟁력이란 일개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타 기업에 대한 비교우위를 획득함으로써 시장 내의 경쟁상황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일국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표를 추구하는 상이한 주체들 간에 발생하는 특정 분야에서의 상대적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일국의 국가경쟁력은 수출경쟁력과 수입경쟁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출경쟁력이란 자국 상품이 해외시장에 침투하여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침투력을 말한다. 수입경쟁력은 자국시자에 자국 상품이 수입품과 경쟁할 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방어력을 의미한다. 수출경쟁력의 개념은 측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추상적이지만, 그 결과는 수출의 규모와 시장점유율<sup>3)</sup>로 표현할 수 있다.

#### 1.2 수출경쟁력의 측정방법

어떤 국가의 수출경쟁력은 특정 국가가 생산을 통해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는 능력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생산성이 수반되지 않고는 수출경쟁력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산업경쟁력은 세계시장에서 자사의 상품을 타국의 상품과 비교했을 때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다. 따라서 어떤 산업에 있어 수출경쟁력은 그 산업의 세계시장점유율로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점유율은 전 세계 생산량 또는 판매량을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고 이것이 용이하지 않을 때에는 전 세계 무역량 또는 해외직접투자 금액 등을 기준으로 측정할 수도 있다.

3) 조동성, "국가간의 국제경쟁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경영논집, 1989,p6.

주체	개 념	측정수단
국가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높은 소득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1인당 GNP, 생산성
산업	다른 국가의 동종 산업과 비교하여 세계적으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시장점유율, 무역점유율, 해외직접투자점유율
기업	해당산업에서 다른 국가의 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원가 또는 높은 기술력과 성과 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수익성, 시장점유율, 차별화 능력 등

<표 1> 수출경쟁력 개념과 측정수단<sup>1)</sup>

### III. 한국의 대ASEAN 교역 및 투자현황

#### 1. 대동남아 경제 및 성장 잠재력

동남아국가는 수출증가 및 외국인 직접투자(FDI)유치 등을 통해 ‘2000년대는 연평균 5~6%의 성장을 지속하였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전까지 교역규모는 연평균 18% 증가 하였다. 무역수지는 70억불 수준을 유지 하였고, 2003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액은 연평균 37%를 기록하였다.

<표 2>ASEAN6 주요경제지표를 보면 2012년 기준 GDP의 경우 인도네시아는 세계 16위 와 태국은 32위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35위 싱가포르의 경우 39위, 필리핀 45위, 베트남 58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1인당 GDP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싱가포르의 경우 한국보다 앞서는 세계 1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1>의 경우 각 국의 경제성장률도 1990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 1998년에는 세계외환위기 이후 각국의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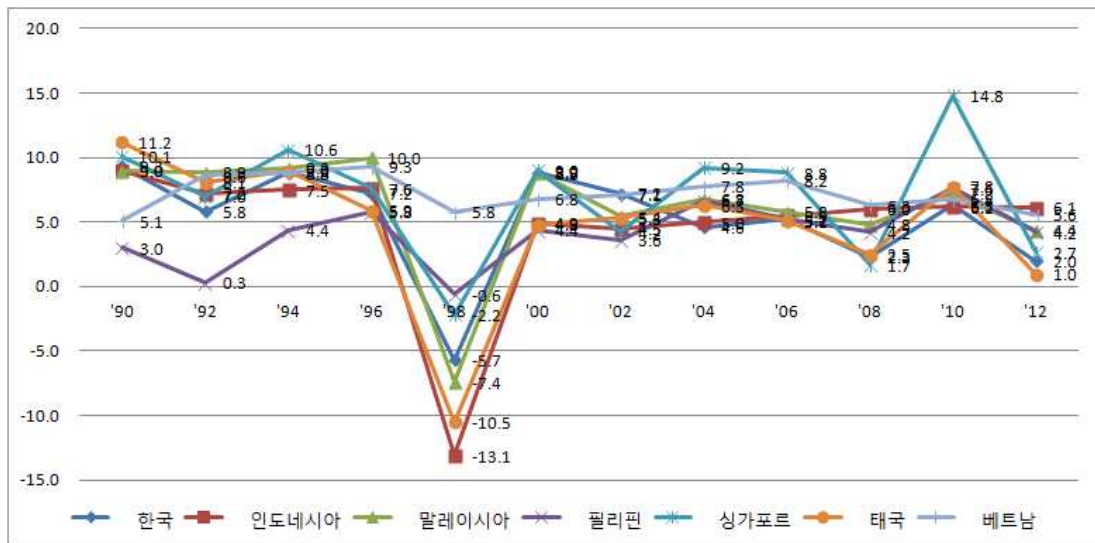
그러나 세계경제위기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대동남아 국가들의 빠른 경제성장률은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 일본등 주요 선진국이 교역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 해 나가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대동남아시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면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구 분	GDP (억 달러)	1인당 GDP(\$)	경제성장률 (%)	총수출 (억 달러)	총수입 (억 달러)
인도네시아	9,283	3,797	6.1	2,169	1,265
태국	3,772	5,850	1.0	2,252	2,019
말레이시아	3,058	10,467	4.4	2,332	1,808
싱가포르	2,700	50,324	2.7	4,339	3,826
필리핀	2,276	2,329	4.2	514	6,75
베트남	1,498	1,498	5.6	1,079	1,091

<표 2>ASEAN6 주요 경제 지표(2012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작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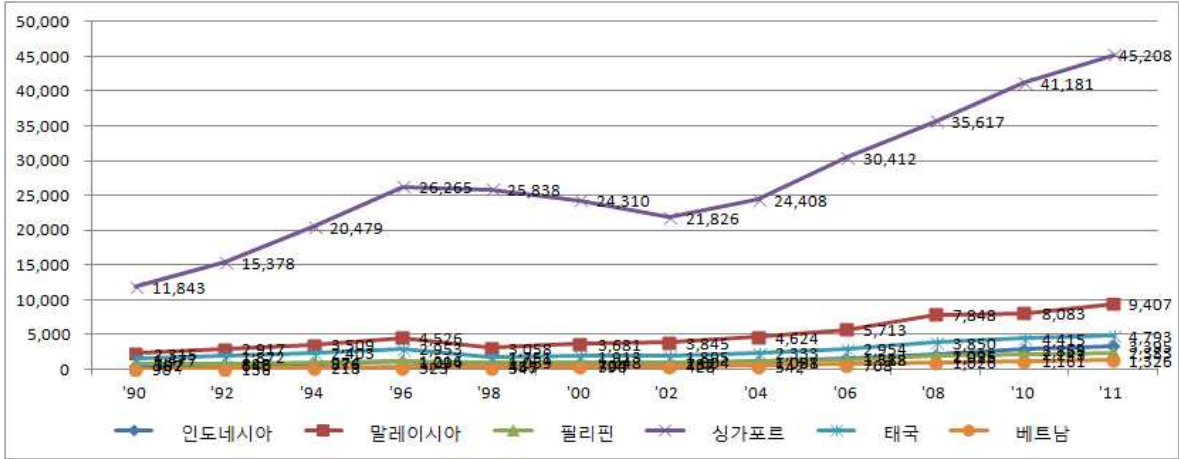
<그림 1> ASEAN6 경제성장률

자료: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작성

대동남아시아는 연평균 경제성장률 면에서 MERCOSUR, EU, NAFTA를 능가하는 아시아 거대 경제권역이고, 또한 아세아자유무역지대(AFTA), EU형 경제공동체 형성 추진을 통해 세계경제에서 거대시장으로 부각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그림 2>에서 보는바와 같이 1인당 GDP 소득도 2011년 기준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인구 중 젊은 생산 연령층과 중간소득 계층의 확산으로 인하여 탄탄한 내수시장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고도성장이 가능한 국가라고 할 수 있으며, 아시아 국가의 저출산·고령화와 달리 완만한 인구 증가율과 높은 출생률을 보이고 있다.

(단위: 억달러)



<그림 2>ASEAN6국가별 1인당 GDP

자료: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대ASEAN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무역·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우대 조치, FTA·투자협정 추진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ASEAN+3에서의 금융협력 논의를 통한 금융협력 강화로 교역 및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대동남아를 중국의 물가·임금상승, 위안화 강세 등으로 생산입지로써 중국을 대체하는 지역이 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2006년 이후 우리의 해외투자에서 중국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ASEAN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이다.

부존자원적인 측면에서 볼 경우 ASEAN은 부존자원이 풍부하고 우리의 자원개발 진출이 활발하여 안정적인 자원 공급처로 중요성이 증대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석유, 천연가스, 목재, 고무 등이 풍부하여 우리기업의 주요 자원개발 진출지역이며, 최근에는 후발 4개국을 중심으로 지하자원 탐사가 본격화 되고 있다.

ASEAN은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동아시아 경제·외교협력의 중심축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며, 자유무역협정, 경제공동체, 역내 금융협력 등 경제협력 논의의 중심역할로 동북아 3국, 호주·뉴질랜드·인도와 FTA를 타결하여 FTA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 동남아 우호협력조약(TAC),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ASEM, APEC 등을 통한 협력도 활발하여 외교·안보의 중심적 협력체로 부상하고 있다.

## 2. 한국의 대동남아 국가별, 연도별 교역추이

### 2.1 ASEAN의 교역현황

2011년 기준 ASEAN국가의 총 대외교역액은 1조 2천억 달러이며, 이 중 ASEAN역내 교역액은 5,983억 달러로 총 대외 교역액의 25%를 차지한다. ASEAN의 10대 교역국은 비중의 순서대로 ASEAN, 중국, 일본, EU(27개국), 미국, 한국, 홍콩, 대만, 인도, 호주이며, 이들

주요10개국과의 교역액이 전체 교역액의 약 84.4%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중국, EU, 일본, 미국의 교역 비중은 전체 교역액의 약 41%를 차지하여 대외교역의 선진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최근 급성장 하고 있는 중국의 비중도약 11.7%에 달해 상기 선진 4개 지역의 비중과 비슷한 수준에 있다는 점과 2009년 이후 대만이 호주보다 교역량이 앞서고 있다는 점도 특이하다. <표 3>에서 보듯이 한국은 ASEAN의 6대 교역국이며, 총 교역액의 약1,245억 달러로 ('05년 490억불) 대외 총 교역액의 약5.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ASEAN은 2012년 기준으로 미국, 일본, 중국, EU에 이은 5대 교역대상 지역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12%에 이른다.

(단위: 억 달러, %)

국가	교역			비중		
	수출	수입	총교역액	수출	수입	비중
ASEAN	3,275	2,707	5,983	26.4	23.6	25.0
중국	1,279	1,525	2,804	10.3	13.3	11.7
일본	1,452	1,282	2,734	11.7	11.2	11.4
EU-27	1,266	1,082	2,348	10.2	9.4	9.8
미국	1,063	925	1,988	8.6	8.1	8.3
한국	545	700	1,245	4.4	6.1	5.2
홍콩	813	154	967	6.5	1.3	4.0
대만	337	472	809	2.7	4.1	3.4
인도	428	257	685	3.4	2.2	2.9
호주	373	222	595	3.0	1.9	2.5
주요10개국 총교역액	10,830	9,325	20,155	87.2	81.4	84.4
기타국가 교역액	1,593	2,138	3,731	12.8	18.6	15.6
전체교역액	12,423	11,463	23,886	100	100	100

<표 3> ASEAN 10대 교역국과 교역현황(2011년 기준)

자료: <http://www.aseansec.org>

## 2.2 한국의 대동남아 교역현황

한국의 대ASEAN교역은 1991년~1997년간 평균 26% 성장 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1998년에는 전년대비 24.7% 감소하였다. <표 4>를 살펴보면 1999년~2000년에는 수출, 수입 모두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2001년에 또 한 차례 전년대비 수출입이 감소하였으나, 2002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양자간 교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대 ASEAN무역지수는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외환위기 이전 대비 흑자폭이 감소하였고, 1990년 9억 5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이후 1997년부터 흑자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 현재 약 27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단위: 억불, %)

년도	총교역액	수출		수입		수지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990	1,034	522	29.2	512	22.2	9.5	7.7
1992	1,616	904	23.4	712	15.5	19.3	10.2
1994	2,034	1,249	23.5	785	7.4	46.4	10.3
1996	3,238	2,031	13	1,207	19.1	82.4	11.6
1998	2,446	1,533	-24.7	913	-27.2	61.9	10.8
2000	3,830	2,013	13.7	1,817	48.4	19.6	11.5
2002	3,516	1,840	11.8	1,676	5.3	16.4	11.2
2004	4,641	2,403	18.6	2,238	21.3	16.4	9.7
2006	6,181	3,207	16.9	2,974	14.1	23.2	9.8
2008	45,840	4,928	27.2	40,912	23.6	83.7	10.5
2010	9,730	5,320	29.8	4,410	29.5	91.0	10.9
2012	13,113	7,915	10.2	5,198	-2.2	2,71.7	12.3

<표 4> 한국의 대동남아 연도별 교역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시스템을 이용해 작성.

<표 5>는 한국과 대동남아 각 국가와의 총 교역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교역 비중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태국, 필리핀, 베트남과의 교역비중이 약 30%, 그리고 나머지 국가와의 교역 비중이 10%를 차지하고 있다.

(단위: 억불, %)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인도네시아	78 (-11.8)	79 (1.5)	86 (9.2)	101 (16.9)	132 (31.7)	137 (3.7)	149 (8.5)	166 (11.5)	153 (-0.9)	229 (49.9)	308 (34.5)
말레이시아	68 (-19.0)	73 (7.5)	81 (11.6)	102 (25.4)	106 (4.5)	125 (17.4)	142 (13.4)	137 (17.2)	119 (-12.9)	157 (31.5)	16.8 (7.0)
싱가포르	721 (-24.3)	77 (7.9)	87 (14.0)	101 (15.9)	127 (25.8)	154 (20.8)	188 (22.3)	234 (35.5)	215 (-8.9)	231 (7.5)	298 (29.1)
태국	34 (-5.7)	41 (17.5)	44 (9.5)	56 (26.6)	61 (8.4)	76 (24.8)	83 (9.0)	94 (25.0)	78 (-17.4)	106 (36.9)	139 (30.5)
필리핀	44 (-15.9)	48 (10.6)	49 (2.5)	55 (11.3)	55 (0.7)	61 (10.5)	69 (12.1)	72 (5.0)	72 (0.2)	93 (29.2)	109 (17.0)
베트남	21 (5.5)	27 (28.0)	37 (13.4)	39 (27.9)	41 (5.0)	49 (17.6)	71 (45.5)	87 (53.2)	95 (9.1)	130 (36.4)	186 (42.9)

<표 5> 한국의 대동남아 국가별 교역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시스템을 이용해 작성.

1990년과 2012년 한국의 대ASEAN주요 수출품목을 비교해 보면 <표 6>에서와 같이 품목의 순위변동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순위변동이 있었다. 1990년부터 주력산업인 반도체는 2000년대 초까지 지속적인 한국의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석유제품의 경우는 2000년도부터 수출 주력 산업으로 2012년 현재까지 계속해서 상위수출 품목으로 있으며, 철강관 부분도 2012년에 들어와서 수출품목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자동차산업은 2000년도에 들어와서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산업이다.

(단위: 억 달러)

순위	1990년		2000년		2012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반도체	7.1	반도체	88.1	석유제품	183.7
2	철강관	3.3	석유제품	10	반도체	99.0
3	컴퓨터 인조장섬 유직물	2.6	전자관	7.6	선박해양 구조물 및부품	57.9
4	선박해양 구조물 및부품	2.5	무선통신 기기	6.7	철강관	45.0
5	영상기기	2.2	합성수지	6.3	합성수지	25.0
6	섬유및화 학기계	1.9	컴퓨터	6.1	편직물	18.6
7	섬유및화 학기계	1.8	철강관	6	자동차	18
8	가죽	1.6	자동차	6	무선통신 기기	16.0
9	기타직물	1.5	기타직물	5.9	금은 및 백금	12.2
10	음향기기	1.4	인조장섬 유직물	4.9	평판디스 플레이 및 센서	12

<표 6> 한국의 대ASEAN10대 주요 수출품목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시스템을 이용해 작성.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ASEAN으로부터 주요 수입 품목은 전기전자제품, 에너지원, 1차산품 등이 주류를 이룬다. 천연가스의 경우 1990년에 4억6천 달러에서 2012년 84억 달러 수입되어 가장 높은 비중을 하였으며, 원유의 경우도 1990년 13억 달러에서 2012년 52억 달러의 수입되고 있는 품목이다.

특히 1990년과 2000년 대비 천연가스와 반도체, 원유, 석유제품 등의 수입이 증가하였다.

(단위: 억 달러)

순위	1990년		2000년		2012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원유	13	반도체	35.7	천연가스	84
2	천연가스	4.6	컴퓨터	28.1	반도체	67
3	석유제품	4.1	천연가스	25.5	원유	52
4	반도체	3.5	원유	18.8	석유제품	38
5	컴퓨터	2	석유제품	11.9	석탄	34
6	동제품	1	동광	2.5	의류	19
7	동광	0.6	전자관	2.3	컴퓨터	13
8	기타정밀화학	0.5	제지원료	2.1	반도체제조용	10
9	LPG	0.4	금은및백금	1.9	동제품	7.6
10	주석제품	0.4	수동부품	1.8	기타정밀화학	5.7

<표 7>한국의 대ASEAN10대 주요 수입품목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시스템을 이용해 작성.

### 2.3 한국의 대동남아 주요국간 품목별 교역현황]

한국의 대ASEAN 6대 교역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며, 이들 6개 국가와의 교역이 대ASEAN전체 교역의 약90% 이상을 차지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SEAN6개 국가와 한국과의 교역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 2.3.1 인도네시아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교역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기준, 한국의 수출 대상국 중 8위, 수입 대상국 중 9위를 차지하고 이는 적자 교역국이다. <그림 3>에서 살펴보면 수출은 1990년 10억 8천 달러에서 2000년에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2년에는 4배 이상 상승한 국가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수입은 90년대 16억 달러에서 2000년에는 52억 9천 달러로 2012년에는 156억 8천 달러를 기록 중 이다.



<그림 3> 대인도네시아 교역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시스템을 이용해 작성.

### 2.3.2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10대 교역 상대국은 중국, 싱가포르, 일본, EU, 태국, 한국, 인도네시아, 홍콩 그리고 대만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말레이시아 총교역의 79%에 달하는 9227억 링기트 규모의 교역량을 달성 하였다. <그림 4>에서 한국과의 교역 규모를 살펴보면 1990년대는 수입보다는 수출이 증가했다. 2002년대에 접어들어 수입이 약49억 달러, 수출은 약 32억 달러로 수출을 앞서고 있다. 2002년을 기점으로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교역관계는 수출보다 수입이 앞서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대말레이시아 교역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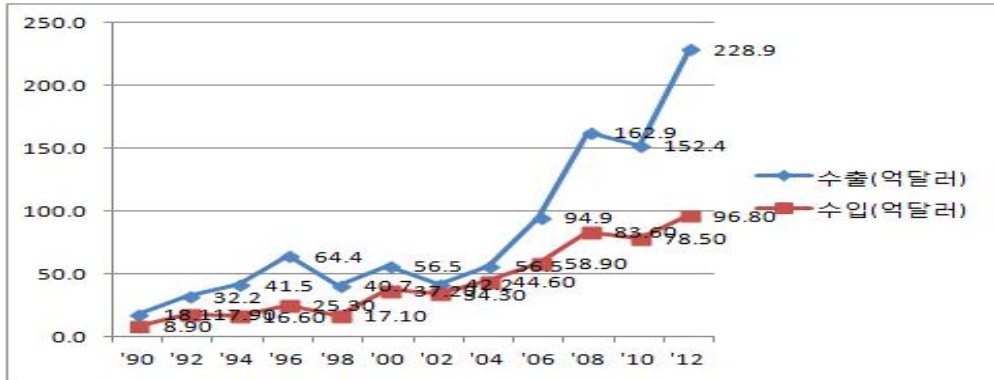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시스템을 이용해 작성

### 2.3.3 싱가포르

싱가포르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경기회복정책에 힘입어 2010년 14.5%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11년에는 성장률이 둔화 되었으나 생의학 등 제조업 성장에 힘입어 4.9% 성장 하였다. 생산부문에서는 제조업이 4.6%로 2011년 중 경제성장을 주도하였다. 서비스업은 금융서비스와 기타서비스가 각각 9.1%, 6.7% 성장하였으나 전체로는

1.1% 성장에 그쳤다. 수요부문별로는 민간소비와 고정자본형성이 각각 4.1% 및 3.3% 증가하였으나, 대외수요와 정부소비는 2.3%와 0.9%증가에 그쳤다.

한국과 싱가포르의 교역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6년 약64 억 달러 증가했지만, 1998년 약 40억 달러로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2004년부터 본격적인 수출 금액이 증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입은 2000년에 약 40억 달러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 나 이후 완만한 수입 증가를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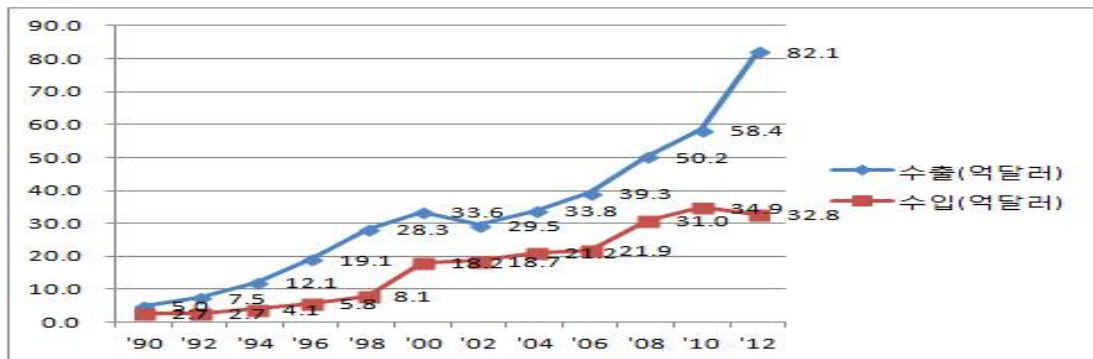
<그림 5> 대싱가폴 교역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시스템을 이용해 작성

### 2.3.4 필리핀

필리핀은 다른 ASEAN국가들보다 공업화를 일찍 시작하였으나, 주로 수입을 대체하기 위한 자금용 공업화였으며, 따라서 상품수출을 위한 생산 기반은 취약한 편이다. 주요 수출 품목은 전기·전자장비, 의류, 광물성 제품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전기제품, 광물성연료, 수송 장비이다. 특히 필리핀은 크롬, 니켈 등의 광물성자원의 매장량이 세계 10위권으로 매우 풍부하여 광물성 제품이 주요 수출품 중 하아라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과의 교역 추이는 <그림 6>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1990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수출은 2002년 주춤함을 보이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입은 2010년까지 완만하게 상승했지만 2012년에는 소폭 하락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6> 대필리핀 교역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시스템을 이용해 작성

### 2.3.5 태국

태국의 산업구조는 말레이시아와 같이 수입가공형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2005년 기준 태국의 주요 수출품이 기계부품과 전자제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수입 품목이 원자재·자본재·연료 및 운할유로 이루어 있는 것에서 잘 나타난다. 한편 다른 ASEAN국가와 달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업 공정 방식이 아닌 한 기업이 전체공정을 도맡아 하는 게 특징이다. 한국과 대태국의 교역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7>과 같이 1996년 까지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1998년 감소하여 2012년까지 지속적인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입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나 2010년 약42억 달러로 줄어들었지만 2012년 약 54억 달러로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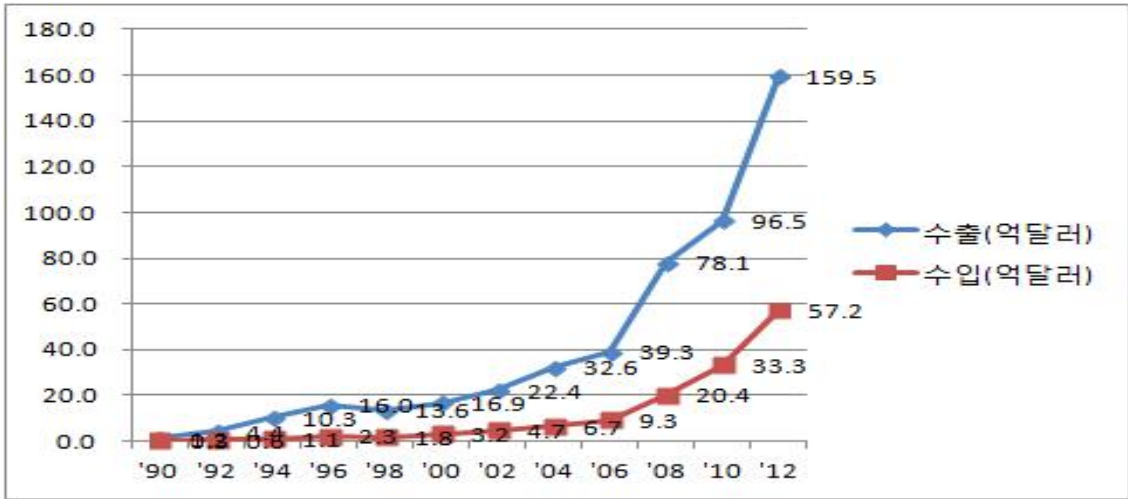


<그림 7>대태국 교역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시스템을 이용해 작성

### 2.3.6 베트남

베트남은 2007년 WTO의 공식 회원국으로 가입 하였고, 시장 개방으로 인해 최근 세계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국가이다. 주요 수출 품목은 원유, 섬유류, 신발류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기계류, 정제유, 철강 등으로 경공업제품의 수출 비중이 크고 투자의 증가에 따른 기계제품의 수입 비중이 큰 것이 특징이다. 한국과 대베트남의 교역추이를 <그림 8>과 같이 살펴보면, 총 교역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1990년 수출은 1억2천억 달러에 불과 했는데 2012년에는 무려 150%이상 증가하였다. 수입은 1990년 3천만 달러에 불과 했는데 2000년에 3억2천만 달러이고 2012년에는 약 57억 달러 수입액이 증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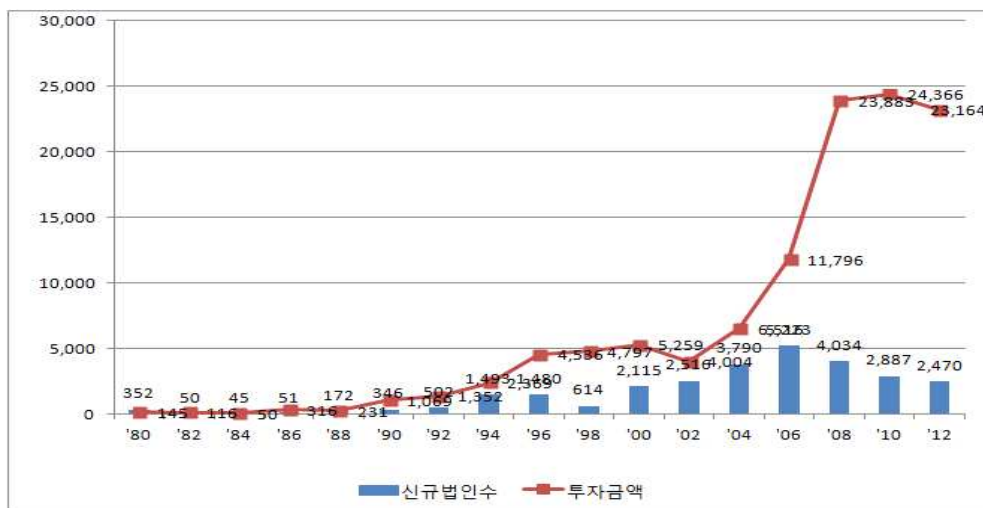


<그림 8> 대베트남 교역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시스템을 이용해 작성

### 3. 한-ASEAN의 투자현황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1968년 첫 투자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누적기준으로 총 2,15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특히 2006년에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2007년에 2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였고, 금융위기 이후 2009년에 204억 달러로 감소하기도 하였다., 2012년에는 232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였다. 1991년 이후 20년 동안 수출이 6.5배, 국내총생산이 3.2배 증가한데 반해 해외직접투자는 17.6배 증가하여 매우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2010년 1조 2,4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5% 증가하였으나, 2007년 최고치 대비 37%, 2005년부터 2007년의 3년 평균보다 15% 낮은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해외투자가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9> 한국의 연도별 해외직접투자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를 활용해서 작성

## IV.수출결정요인 실증분석

### 1. 수출경쟁력 지수에 사용된 지수

수출경쟁력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장점유율(MSI), 무역특화지수(TSI),현시비교우위지수(RCA), 산업 내 무역지수(GL)등을 이용하여 수출경쟁력의 이론적 측면과 실제적 측면을 분석 하고자한다.

#### 1.1 시장점유율 지수(Market Share Index)

시장점유율은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같은 종류의 제품 중에서 어느 한 기업의 제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다. 시장점유율을 가장 큰 기업부터 순서대로 누적한 것이 집중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는 시장점유율은 시장 전체의 수입액에서 각 수출국이 차지하는 비중으로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MSA_{ij}^k = \frac{M_{ij}^k}{M_j^k} \times 100 \dots \dots \dots (4-1)$$

$MSA_{ij}^k$  : k 상품에 대한 i 국의 j 국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M_{ij}^k$  : i 국의 j 국 시장에 대한 k 상품의 총수출

$M_j^k$  : j 국의 k 상품의의 총수입

#### 1.2.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ation Index)

무역특화지수란 특정한 업종이나 상품이 수출에 특화되어 있는지 또는 수입에 특화되어 있는지를 지수로 순 수출비율지수 또는 국제경쟁력(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Index)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무역특화지수는 해당상품의 순 수출액이 무역특화지수 제품의 무역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계산된다. 무역특화지수가 -1인 경우는 완전수입특화, 0인 경우는 비교우위중립적인 상태, +1인 경우에는 완전 수출특화를 나타낸다. 무역특화지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TSI = \frac{X_{ij} - M_{ij}}{X_{ij} + M_{ij}} \times 100 \dots \dots \dots (4-2)$$

$X_{ij}$  : 일정기간동안 i국의 j상품에 대한 총 수출액

$M_{ij}$  : 일정기간동안 i국의 j상품에 대한 총 수입액

또한 무역특화지수가 국제경쟁력지수의 이름으로 사용될 때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동지수의 값이 0+1인 경우에는 동제품이 흑자가 되어 국제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0-1인 경우에는 동제품이 무역적자가 되어 국제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거나 수출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ASEAN6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살펴보고자 하므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0.5 \leq TSI \leq 1.0$	: 비교우위가 매우 강함
$0.0 < TSI < 1.0$	: 비교우위가 강함
$TSI = 0.0$	: 비교우위가 중립
$-0.5 < TSI < 0.0$	: 비교우위가 열세
$-1.0 \leq TSI \leq -0.5$	: 비교우위가 매우 열세

$$EX_{KU}^i = \left( \frac{EX_{KU}^i - IM_{ID}^i}{EX_{KU}^i + IM_{ID}^i} \right) \times 100 \dots\dots\dots(4-3)$$

$EX_{KU}^i$ : i산업에 대한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액

$IM_{ID}^i$ : i산업에 대한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입액

$$EX_{KU}^i = \left( \frac{EX_{KU}^i - IM_{ML}^i}{EX_{KU}^i + IM_{ML}^i} \right) \times 100 \dots\dots\dots(4-4)$$

$EX_{KU}^i$ : i산업에 대한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수출액

$IM_{ML}^i$ : i산업에 대한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수입액

$$EX_{KU}^i = \left( \frac{EX_{KU}^i - IM_{TH}^i}{EX_{KU}^i + IM_{TH}^i} \right) \times 100 \dots\dots\dots(4-5)$$

$EX_{KU}^i$ : i산업에 대한 한국의 대태국 수출액

$IM_{TH}^i$ : i산업에 대한 한국의 대태국 수입액

$$EX_{KU}^i = \left( \frac{EX_{KU}^i - IM_{SG}^i}{EX_{KU}^i + IM_{SG}^i} \right) \times 100 \dots\dots\dots(4-6)$$

$EX_{KU}^i$ : i산업에 대한 한국의 대싱가폴 수출액

$IM_{SG}^i$ : i산업에 대한 한국의 대싱가폴 수입액

$$EX_{KU}^i = \left( \frac{EX_{KU}^i - IM_{VT}^i}{EX_{KU}^i + IM_{VT}^i} \right) \times 100 \dots\dots\dots(4-7)$$

$EX_{KU}^i$ : i산업에 대한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액

$IM_{VT}^i$ : i산업에 대한 한국의 대베트남 수입액

$$EX_{KU}^i = \left( \frac{EX_{KU}^i - IM_{PH}^i}{EX_{KU}^i + IM_{PH}^i} \right) \times 100 \dots\dots\dots(4-8)$$

$EX_{KU}^i$ : i산업에 대한 한국의 대필리핀 수출액

$IM_{PH}^i$ : i산업에 대한 한국의 대필리핀 수입액

무역특화지수는 동일 산업내의 수출과 수입이 동등하게 이루어질 때 (산업 내지수 100%) 0%가 된다. 한편 동일 산업 내에서 수출은 많지만 수입액이 없는 경우, 무역특화지수가 +100%로 나타난다. 반대의 경우 -100%가 나타난다. 따라서 어떤 산업이 산업 내 무역이 증진 될 경우 그 산업의 무역특화지수는 -100% 혹은 +100%에서 0방향으로 이동 하게된다.

무역특화지수가 낮아지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첫째,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이고, 둘째, 무역이 촉진되어 양국 산업 구조가 유사해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무역 특화

도는 시장점유율과 동시에 고려한다면 산업 내 무역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업 내 무역이 활성화 된다는 것은 시장점유율 변동이 없거나 상승하면서 무역특화도가 하락할 때, 산업 내 무역이 경쟁력 상실로 수출 감소가 발생한다는 것은 시장점유율과 무역특화도가 동시에 하락 할 경우이다.

### 1.3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시장점유율은 특정시장의 총수입 중 당해 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으로서, 동 비율이 높을수록 그 시장에서 당해 국이 경쟁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특정국가가 어느 시장에서 다른 국가보다 더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는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점유율은 해당국가의 수출규모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시장 점유율의 단순한 국별 비교도 의미가 있으나 이보다는 특정국가의 시장 점유율의 동태적인변화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특정시장에서의 점유율이 해당시장에 대한 지리적 인접성이나 경제적 상호의존도, 수출다변화정책 등 다른1 용인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받는다는 점에서, 시장점유율에 의한 경쟁력 분석은 특정시장보다는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는 각국의 비교우위 체제를 검토하기 위한 방법으로 Balassa(1965)가 고안한 비교우위지수이나 동시에 각국의 경쟁력 비교에 활용되고 있다.

RCA 지수는 비교우위를 반영하는 수출과 같은 무역변수들을 국가 간 또는 산업 간에 비교하기 위해 상품의 중요도와 국가의 크기 등으로 조정한 무역성과지수로 정의되며, 교역국들 간의 생산, 소비, 수출, 수입구조를 이용하여 도출한다. 또한 무역과 생산 및 소비 구조(TPC)는 국가 간의 비교우위구조에 따라 결정된다. 비교우위(CA)는 각국 교역국들의 경제적 조건(EC)에 따라 발생하는데, RCA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조건을 통해 비교우위를 측정하고 무역·생산·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비교우위지수를 도출하게 된다.

RCA지수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그 값이 1보다 크면 해당국가의 k 품목이 자국의 여타품목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일반적인 RCA 지수는 아래의 식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RCA_{k,x} = \left( \frac{X_{k,ij}}{M_{k,j}} / \frac{X_{k,i}}{M_k} \right) \times 100 \quad \dots\dots\dots(4-9)$$

$X_{k,ij}$  : i국의 k국에 대한 j상품의 총 수출액

$X_{k,i}$  : i국의 k국에 대한 총 수출액

$M_{k,j}$  : k국의 j상품의 총수입액

$M_k$  : k국의 총수입액

RCA지수는 특정국의 품목별 세계시장 점유율을 특정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로 나눈 값과 동시에 특정국의 품목별 수출비중을 세계시장에서의 품목별 수입비중으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RCA지수는 시장점유율의 단순한 비교가 경제규모가 상이한 국가 간의 비교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국별 시장점유율과 품목별 시장점유율을 동시에 감안함으로써 경제규모가 상이한 국가 간에도 경쟁력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고안

된 지표이다.

이와 함께 이론적으로 세계 전체의 총수출액과 총수입액은 같다는 점에서, RCA지수는 세계의 수요(수입규모) 변화에 대한 각 국의 품목별 수출변화를 설명해주는 경쟁력 지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ASEAN6시장 이라는 특정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경쟁력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적용범위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ASEAN6에서 한국의 수출 경쟁력 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정한 아래의 식(4-9)을 분석도구로 사용하고자 한다.

$$RCA_{kx} = \left( \frac{X_{k,ij}}{M_{k,j}} / \frac{X_{k,i}}{M_k} \right) \times 100 \quad \dots\dots\dots(4-10)$$

$X_{k,ij}$ : 인도네시아의 I국에 대한 j상품의 총 수출액

$X_{k,i}$ : 인도네시아의 I국에 대한 총 수출액

$M_{k,j}$ : 한국의 j상품의 총수입액

$M_k$ : 한국의 총수입액

$$RCA_m = \left( \frac{X_{MLij}}{M_{MLj}} / \frac{X_{MLi}}{M_{ML}} \right) \times 100 \quad \dots\dots\dots(4-11)$$

$X_{MLij}$ : 말레이시아의 I국에 대한 j상품의 총 수출액

$X_{ML,i}$ : 말레이시아의 I국에 대한 총 수출액

$M_{ML,J}$ : 한국의 j상품의 총수입액

$M_{ML}$ : 한국의 총수입액

$$RCA_m = \left( \frac{M_{THij}}{M_{THj}} / \frac{M_{THi}}{M_{TH}} \right) \times 100 \quad \dots\dots\dots(4-12)$$

$M_{THij}$ : 태국의 i국으로 부터의 j상품의 총수입액

$M_{TH,i}$ : 태국의 i국으로 부터의 총수입액

$M_{TH,J}$ : 태국의 j국상품의 총수입액

$M_{TH}$ : 태국의 총수입액

$$RCA_m = \left( \frac{M_{SGij}}{M_{SGj}} / \frac{M_{SGi}}{M_{SG}} \right) \times 100 \quad \dots\dots\dots(4-13)$$

$M_{SGij}$ : 싱가포르의 i국으로 부터의 j상품의 총수입액

$M_{SG,i}$ : 싱가포르의 i국으로 부터의 총수입액

$M_{SG,J}$ : 싱가포르의 j국상품의 총수입액

$M_{SG}$ : ,싱가포르의 총수입액

$$RCA_m = \left( \frac{M_{VTij}}{M_{VTj}} / \frac{M_{VTi}}{M_{VT}} \right) \times 100 \quad \dots\dots\dots(4-14)$$

$M_{VTij}$ : 베트남의 i국으로 부터의 j상품의 총수입액

$M_{VT,i}$ : 베트남의 i국으로 부터의 총수입액

$M_{VT,J}$ : 베트남의 j국상품의 총수입액

$M_{VT}$ : 베트남의 총수입액

$$RCA_m = \left( \frac{M_{PHij}}{M_{PHj}} / \frac{M_{PHi}}{M_{PH}} \right) \times 100 \quad \dots\dots\dots(4-15)$$

$M_{PHij}$ : 필리핀의 i국으로 부터의 j상품의 총수입액

$M_{PH,i}$ : 필리핀의 i국으로 부터의 총수입액

$M_{PH,j}$ : 필리핀의 j국상품의 총수입액

$M_{PH}$ : 필리핀의 총수입액

식(4-9)은 m국의 ASEAN6에 대한 u상품의 총 수출액이 ASEAN6의 u품목의총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m국의 ASEAN6에 대한 총 수출액이 ASEAN6의 총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눈 것이며,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m국의 ASEAN6에 대한 수출총액이 ASEAN6의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 $M_{M,i}/M_M$ )은 스케일 요소로써 특정수입시장에 대한 수출이 특정수출상품에 편중되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강한 수출경쟁력 현상을 조정하며, m국의 ASEAN6에 대한 u품목의 수출경쟁력을 나타내고 있다. 식(4-9)의 지수 값이 100 보다 클 경우 넓게는 m국의 ASEAN6에서의 수출경쟁력을 그리고 좁게는 m국의 ASEAN6에서 u상품에 수출경쟁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조정된 RCA 지수가 갖는 의미는 조정된 RCA 지수 값이 100이상이면 수출경쟁력이 강한 것으로 B평가하고, 100이하이면 ASEAN6수입 시장 내에서 평균수출경쟁력보다 약한 것으로 평가한다.

#### 1.4 산업 내 무역지수(Grubel-Lloyd)

한국과 ASEAN6제조업 부문교역에서 품목별 상호 보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품목 분류상 같은 분류에 속하는 상품을 수출하면서 수입하는 형태의 산업내무역의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 산업 내 무역(수평적 또는 수직적 분업의 상호 보완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GL지수를 사용한다.

$$GL_{ij}^k = 1 - TSI_{ij}^k = 1 - [(X_{ij}^k - M_{ij}^k)/(X_{ij}^k + M_{ij}^k)] \dots\dots\dots(4-17)$$

$X_{ij}^k$ : i국의 j국에 대한 k 품목의 수출액

$M_{ij}^k$ : i국의 j국에 대한 k 품목의 수입액

GL지수는 산업별, 국별 특화가 많이 진전될수록 산업내무역이 저조해지는 반면 특화가 작게 진행될수록 산업내무역이 활발하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1에서 무역특화지수를 차감한 값으로 정의 한다. 따라서 GL지수가 클수록 특화정도가 낮아 산업내무역이 활발한 반면 작을수록 특화가 많이 진전되어 산업내무역이 저조하게 된다. 산업 내 무역지수는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며 동 지수 값이 0이면 수출, 또는 수입에 완전 특화된 경우이고 1이면 수출규모와 수입규모가 대칭적으로 같아 산업내무역의 비중이 극대화된 경우를 가리킨다.

## 2. 수출경쟁력지수별 분석결과

### 2.1 시장 점유율(Marker Share : MS)

한국의 대ASEAN 시장점유율은 ASEAN수입 시장 중에서 한국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경쟁우위에 있다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대ASEAN 주력 수출품목을 대상으로 시장점유율을 측정 하였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ASEAN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품목은 철 및 금속류와 전기기기장치와 기기, 통신장비 등이며 특히 필리핀의 경우 섬유류부문에서 21.3%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국가마다 상이하지만 철 및 금속류는 평균 시장점유율은 8%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기기기장치와 기기는 평균 18~19%대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반도체와 컴퓨터 등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통신장비 분야에서도 무전기와 휴대폰 등 통신기기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도 평균 10%대를 유지하고 있으면 특히 필리핀과 베트남의 경우는 시장점유율이 ASEAN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하지만 화학제품의 경우 2000년대 이전에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해오다가 2000년 이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대 미만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성장한 중국과 ASEAN국가의 관심도로 인한 미국과 EU의 지속적인 수출로 인하여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수송 장비의 경우 자동차를 포함해서 베트남의 경우 시장점유율은 35.6%로 필리핀의 경우 10.7%를 유지하고 있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경우 전기기기장치와 기기, 섬유류, 철 및 금속에서 시장점유율 지속적인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다른 국가에 비해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음에 지속적인 관심과 미래전망이 가능한 국가임에는 틀림없음을 알 수 있다.

## 2.2 무역특화지수(TSI)

무역특화지수는 한국이 ASEAN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품목별로 알 수 있는 지수라 할 수 있다.

ASEAN국가에서는 수송 장비, 철 및 금속류, 통신장비 등의 순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무역 흑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면, 일부 국가에서는 섬유류, 화학제품, 기계 및 수송 장비 부품에서도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마다 상이하지만 지수의 변동이 심한 품목으로는 사무용 전기통신기기와 전기기기장치와 기기가 심한 변동 폭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품목들이 양(+)의 수치가 나옴에 반해서, 수송 장비, 철 및 금속류는 평균 92.6%와 60%이상을 상회하는 기록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수송 장비와 철 및 금속류는 지수변동은 많았지만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무용 통신기기와 통신장비, 전기기기장치와 기기부분은 ASEAN국가마다 상이하지만 대부분 음(-)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하고 수입에 특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품목들이 2005년을 기준으로 세계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수출주력 산업인 화학제품 부분에서는 2005년 이후 상승과 하락이 많고, 일부 국가에서는 음 (-)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입에 특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듯이, 화학제품, 사무용 전기통신기기 등은 이제 수입에 특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2.3 현시비교우위지수(RCA)

한국의 ASEAN시장에서의 품목별 현시비교우위를 나타낸 것으로 RCA지수가 100이상일 때 수출경쟁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품목이 ASEAN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이 강한 품목으로는 인도네시아는 섬유류가 204.3%, 싱가포르의 사무용 전기통신기기가 343.7%, 전기기기 장치와 기기는 391.7%, 화학제품 116.3%, 베트남의 경우 화학제품류가 404.3%, 통신장비 103.6%, 섬유류 878.1%, 태국의 경우 사무용 전기통신기기 324.5%, 전기기기장치와 기기 158.1%, 통신장비 276.8% 섬유류 208.5%,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사무용 전기기기통신, 전기기기 장치와 기기, 통신장비에서 213.1%, 173.5%, 165.4%를 나타내고 있으며, 필리핀의 경우 사무용 전기기기통신, 전기기기 장치와 기기에서 각각 300.5%, 355.3%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반해 인도네시아는 사무용 전기기기통신, 전기기기 장치와 기기, 철 및 금속에서 각각 17.1%, 9.8%, 18.6%등 변동수치가 낮고, 싱가포르의 경우 철 및 금속, 수송차량에서 각각 4.3%, 5.5%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수송 장비와 철 및 금속에서 1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태국과 필리핀에서는 철 및 금속류가 5.6%, 2.7%대로 아주 낮게 기록하고, 말레이시아의 경우 수송차량에서 4.2%의 평균 낮은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서는 100%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60~70%대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품목이라고 분류해서는 안 될 것 같다.

### 2.4 산업 내 무역 지수(GL)

산업 내 무역지수는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며 특화가 덜 진전될수록 산업 내 무역이 활발하다는 점 때문에 1에서 무역특화지수를 차감한 값으로 정의한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ASEAN시장에 수출되는 한국의 품목들을 살펴보면 화학제품, 철 및 금속, 기계 및 수송 장비부품, 사무용 전기통신기기, 통신장비, 수송 장비, 섬유류 등이 다 물론 컴퓨터 및 반도체는 전기기기장치와 기기에 포함된 부분이다. 전체적으로 0.6%~0.8% 대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산업 내 무역은 활발하나 수출입 특화가 덜 진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ASEAN국가의 대부분은 수송차량 부분에서는 0.1%대 미만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철 및 금속 품목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서 0.1% 미만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필리핀의 경우는 섬유류 품목에서도 0.08%의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산업 내 무역이 저조하고 수출, 수입에 특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ASEAN국가의 수출, 수입의 정도는 상승 추세에 있는 품목도 있지만 하락 추세에 있는 품목들이 많다는 점에서 산업 내 무역이 미국과 EU, 특히 성장하는 중국에 밀려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 V. 결론

본 논문은 시장점유율, 무역특화지수, 현시우위비교지수, 산업 내 무역지수를 이용하여 한국의 대ASEAN 수출경쟁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로는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대ASEAN시장점유율이 높은 품목은 철, 금속류와 전기기기 장치, 통신장비

등이며 특히 필리핀의 경우 섬유류부문에서 21.3%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국가마다 상이 하지만 철, 금속류는 8%, 전기기기장치는 평균 18~19%대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반도체와 컴퓨터 등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무역 특화도 지수를 통해 경쟁력을 분석해보면 ASEAN국가에서 수송, 장비, 철, 금속류, 통신장비 순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무역 흑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한국의 ASEAN시장에서의 품목별 현시비교우위를 나타낸 것으로 RCA지수가 100 이상일 때 수출경쟁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품목이 ASEAN 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이 강한 품목으로는 섬유류, 전기통신기기, 전기장치와 기기 등이 10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일부품목도 100%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60~70%대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품목이라고 분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넷째, 산업 내 무역지수는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며 특화가 덜 진전될수록 산업 내 무역이 활발하다는 점 때문에 1에서 무역특화지수를 차감한 값으로 정의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ASEAN 국가의 수출, 수입의 정도는 상승 추세에 있는 품목도 있지만 하락 추세에 있는 품목들이 많다는 점에서 산업 내 무역이 미국과 EU, 특히 성장하는 중국에 밀려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논문에서는 특정된 산업과 특정된 국가에 한정되어 연구한 반면 대ASEAN국가에 대한 수출경쟁력 분석을 연구한 논문이 극소수에 불과 하여 타 논문과의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본 논문에서 보듯 한국은 과거 노동집약산업에서 자본과 기술 집약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따라서 새롭게 부상되는 대ASEAN시장에서 수출경쟁력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한계점은 가격과 비가격요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기 곤란한 점이다. 따라서 통계분석 상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ASEAN지역의 특성상 각각 다른 산업특색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 산업별 요인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과제는 대ASEAN 수출경쟁력이 특정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강신석(1998), “RAC지수를 이용한 한국의 수출경쟁력 분석”, 한국무역학회지, 제 23권, 제 1호, pp. 45-64.
- [2] 구분호, 전영서(1994), “개방화 경제에서 수출경쟁력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는 무역 및 산업 정책에 관한 연구”, 경제연구, 제 15권, 제 2호, pp. 1-25.
- [3] 김경모(2003), “한국, 일본, 중국의 대미 수출경쟁력 변화추이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김완중(2009), “ASEAN역내 경제 협력 효과분석”, 동남아시아연구, 제 19권, 제 3호, pp. 221-260.
- [5] 김완중(2010), “동남아 수입시장에서 한중일의 경쟁관계 분석”, 한중사회과학연구, 제 8권, 제 1호, pp. 139-163.

- [6] 이나래(2005), “2000~2003년간 한. 중. 일의 품목별 수출성과 비교 분석 - 세계수요와 시장점유율 변화의 종합분석”, 무역연구, pp. 60-76.
- [7] 박설호 (2001), “한국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8] 박시만 (1996), “수출경쟁력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9] 신현곤 (2004), “한. 중. 일 철강 수출경쟁력 비교분석과 시사점”, POSRI 경영연구, 제 4권, 제 1호, pp. 5-28.
- [10] 원종근(1993), “국제경영학” 박영사.
- [11] 윤치호 (2003), “한국의 무역구조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2] 최영섭 (2001), “무역특화지수를 통해 본 제조업 경쟁력 추이 분석”,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연구보고서.
- [13] 최창열 (2004), “한국의 대EU 수출경쟁력 결정요인 분석”,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4] Balassa, B.(1964), “Competitiveness of American Manufacturing in World Markets”, New York.
- [15] Finger, J. M. & Kreinin, M. E.,(1979), “A Measures of Export Similarity and Its Potential Uses,”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vol. 89, Issue 356, pp. 905-12.
- [16] Giancarlo, W., Mehta D., Vernon R.(1967), “The R&G Factor in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of United States Industri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 [17] Irving. B. Kravis, Robert E. Lipsey and Eliot R. J. Kalter(2004), “Export Prices and Exchang Rates”. University of Pennsylvania.
- [18] Salvador, Gil-Pareja and Sim, Sosvilla Rivero(2002), “Export Market Integration in the European Union,” Journal of Applied Economics, Vol. 7, No. 2, pp. 271-301.
- [19] Yamazawa, I.(1970), “Intensity Analysis of World Trade Flow”, Hitotsubashi Journal of Economics. Vol. 10, No. 2, pp. 61-90.
- [20] [http:// www.bok.or.kr](http://www.bok.or.kr)
- [21] [http:// www.kita.net](http://www.kita.net)
- [22] [http:// www.oecd.org](http://www.oecd.org)
- [23] [http:// www.aseansec.org](http://www.aseansec.org)